배바위

문학봉과 수리봉 중간 동록에 마치 오뚝이 모양을 한 바위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문학산 위까지 홍수가 올 것을 묵시허신 노아의 방주같은 이 배. 문학산 아니 인천의 노아는 누가 될 것인지.

〈3〉 여성들의 의상 변천

여기 문학산을 중심으로 하여 낙랑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 이천 년 간 우리 여성들의 의상은 그 변천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낙랑 - 고구려는 - 신라 - 고려는 이러했고, 이조에 와서는, 그리고 현대.

〈4〉 시낭송

▸ 文鶴山의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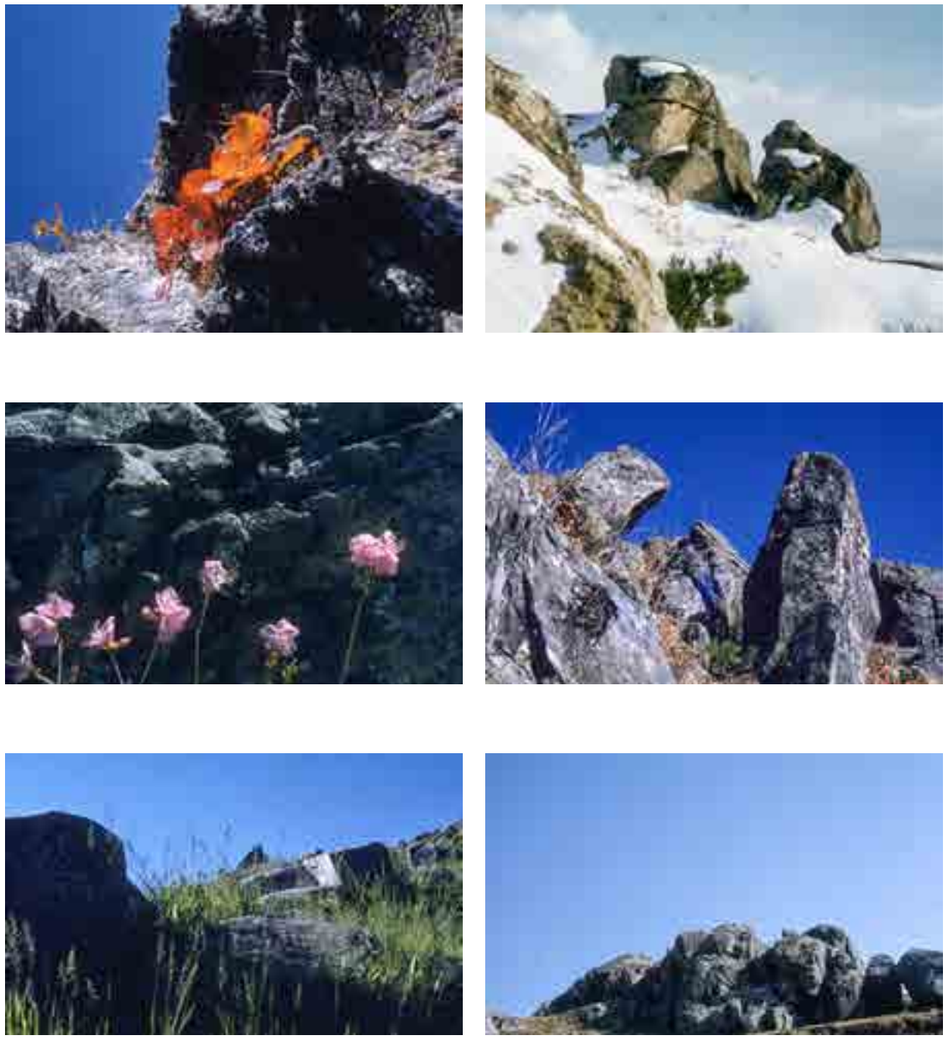
〈문학산의 바위〉

– 이종화 –

문학산의 바위는 그 하나 하나에
사연이 있는 것만 같다 곡절이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꽃들이 난만하여도
그렇게 새들이 우짖어대도
감은채,
담은채,

아, 내가 서글퍼지는
바위들이여 바위들이여!



〈문학산에 피는 꽃〉

– 한상억 –

넋이야
별빛처럼 빛나던
고운 님들의 넋이야.

꽃이야
문학산 허구한 세월
봄을, 여름을, 가을을,
향수에 적시며
향기로 덮으며
피고진 뭇꽃이야.

하늘에 피었다 꺼지는 불꽃같이
너의 아름다운 눈앞에
탕진해버린 하 많은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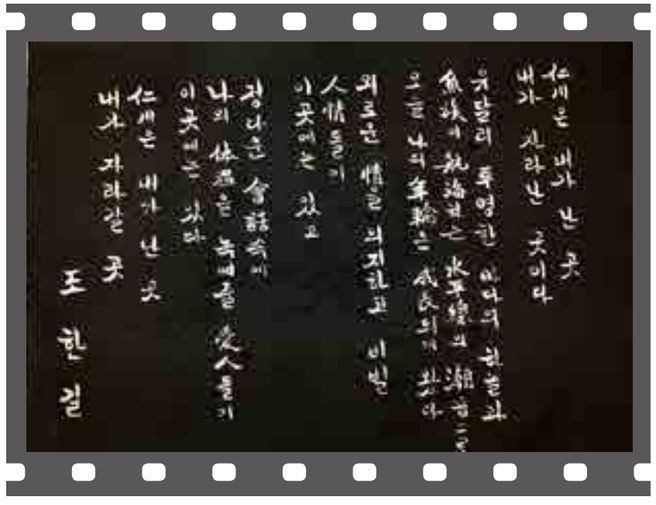
석류알처럼 터진 웃음이
메아리 해
바다와 도시를 의욕하며
너와 더불어 산에서 산다.

〈구름〉

– 낭승만 –

구름은 정착없는 객손의 옷자락
멀고먼 산고비에 쉬는 듯
다시 떠서 끝없이 간다.
구름은 봄보다 가을날
풀잎 끝에 흔들리는 아득한 지평

거기에 우리가 모다 누워서
버레소리를 들으면
구름은 아주 꽃바구니가 되고
한없이 나를 부르는 소리
구름 속에 구름 속에 들린다.



〈인천〉

– 조한길 –

인천은 내가 난 곳
내가 자라난 곳이다
유달리 투명한 바다의 하늘과
어선이 항해하는 수평선의 조음(朝音)으로
오늘 나의 연륜은 성장되어 왔다
외로운 정을 의지하고 비빌
인정들이
이곳에는 있고

정다운 회화속에
나의 체온을 녹여줄 애인들이
이곳에는 있다.
인천은 내가 난 곳
내가 자라날 곳

〈5〉 문학산의 사시(四時)

▸ 봄

여름

가을

▸ 겨울

〈종료〉

이 같이 유서 깊은 문학산은 오늘날 여지없이 황폐해가고만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머리에서도 차차 멀어져가고만 있다. 우리는 인천을 지켜오고, 인천을 길러준 역사깊은 문학산을 정시해야되겠고 재인식해야할뿐만 아니라 희미허게 사라져가고만 있는 우리의 향토사를 되살려야되겠다. 인천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국토가 통일되는 날이 오면 아- 문학산에는 언젠가 가고 아니오던 학들이 다시 찾오리라, 다시 찾아오리라.

[부록] 고일 선생의 1963년 슬라이드 영사회 감상기

인천의 문학산은 살아있다

– 이종화씨 심혈의 결정체 『슬라이드』 작품을 보고 –

20일 밤 문화센터에서 '라이온즈클럽' 주최로 공개된 이종화(李宗和) 작 총천연색사진 '슬라이드' 상영에 비회원인 내가 이종화씨의 개인 초대로 말석을 더럽힌 바 있었다. 이종화씨의 이번 창작 슬라이드는 6년간의 고심 끝에 성취된 것으로 이런 공개는 이번이 5회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처음 이씨의 창작물과 그의 편집된 작품을 본 것은 제2회 공개 때로 추운 겨울밤 항도다방에서 감상의 영광을 입었던 것이고 이번이 나에게는 두 번째가 된다. 나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판할 능력이 없지만 이번 대작에는 최고의 찬사를 아낄 수 없어 나의 소감을 독자에게 피력할 수밖에 없는 충동에 견딜 수 없었다.

이날 밤 인천 대표적인 신사숙녀가 모인 뒷자리에 끼어 호화스런 예술 잔치를 만끽한 것이 대견한 것이 아니라 6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문학산』 '시리즈'에 너무나 기뻤고,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 무아지경에 잠겼던 감격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인천의 선사시대는 신석기시대부터 전개되나니 문학산은 인천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비류의 왕도건설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10년 왕도로서 문학산은 그 관록이 불멸의 것이 된다. 고려 외척의 융성이 문학산이 품은 정기라면 인천이 낳은 세계적 고승이자 유불선에 통달한 천재학자이며 문인인 대각국사의 탄생은 문학산의 영기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문학산은 말없이 이 나라 이 땅을 수호하였으니 문학의 영봉이 바로 인천 역사 그것인 것이리라

여기서 지면이 없어 더 이상 군말 않기로 하자. 오늘날 문학산은 변모되어 다시는 문학산 본래의 자태를 영원히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이 작품이야말로 불멸의 독보적인 인천 역사의 상징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그가 이 작품을 구상하기는 퍽 오랜 일이지만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 모든 심혈을 다하였기에 그 안에는 허다한 고난이 숨어있었던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봉사해야 했고, 문헌을 독파해야 했다. 틈만 있으면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카메라를 들고 나갔고, 무더운 여름날 흐르는 땀과 엄동설한의 삭풍과도 싸워야 했으며 미군 사용지가 된 뒤에는 심야촬영 중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선을 뛰어 넘기도 했다. 6년간 쉬지도 않고 찍어낸 수 천 장의 사진 중 이것을 고르고 또다시 골라 역사적이며 전설적이며 예술적인 체계와 생명력 있는 작품으로 편집하였다. 천연색으로 만드는 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문화적 세련미와 예술미에 더하여 구상의 참신함이야말로 훌륭한 것이며, 그 인내와 지성, 재능, 재화의 전폭적인 노력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것이다.

이번 공개에 있어 인천 문화인의 협조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해설에 예총 경기도지부장인 시인 한상억씨의 녹음을 비롯하여 부지부장 서예가 장인식 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전 박물관장이며,

국전심사위원인 유희강씨와 현 박물관장인 화백 우문국씨, 젊은 문학평론가 김양수씨 등 인천 시인의 작시가 화면에 클로즈 업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녹음에서는 이씨 자신이 직접 선택하였고, 체계화를 위한 여백으로 '문학산의 바위', '문학산의 꽃', '문학산의 구름', 그리고 '문학산의 사계'라는 단편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학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참으로 신묘하고 기발하게 촬영, 편집하였고, 적절한 음악의 녹음은 무의식 중에 영화예술 속으로 도취되는 느낌이다.

관중은 슬라이드를 천연색 영화처럼 느끼게 하는 솜씨에 심취하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종화씨의 작품, 더군다나 영영 다시는 원 자태를 볼 수 없는 문학산은 중년 이상의 환호를 자아낼 것이고, 원래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나이 어린 소년들에게 더욱이 미래의 신생아들이 역사 속의 문학산을 실감있게 직관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인천문화사상 영원히 빛날 것이 틀림없어 이 작품은 복사하여 여러 곳에 보존시켜야 하고 이를 교육적 가치에서 인천 학생들에게 고루 감상케 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의사인 이종화씨는 학자이며 예술가이다. 오히려 낭만이 풍기는 예술가로서 그의 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본지를 장식하는 연재물 『행림낙수』가 그의 문인적 일면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작년 "세종문화잔치" 때 예총 경기도지부장으로서 그 종횡무진의 활약을 보인바 있거니와 그는 인술가로서 너무나 청빈해서 생활의 곤궁은 개업의로서 이색적 존재로 되어 있다. 그는 재기발랄한 아티스트고, 인정과 눈물 있는 봉사자이며, 인내와 노력의 지성인,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일꾼이기도 한 것이다. 정해놓은 지면이 되어 각필하거니와 그의 정진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인천신문』, 1963. 6. 22.

[부록]《문학산(文鶴山)》슬라이드 필름 복원

소장유물 자료집 발간을 위해 슬라이드 필름의 고화질 스캔을 진행하면서, 산화(酸化)된 필름들을 최대한 원색에 가깝게 복원했다. 아래 사진들은 산화 상태가 심한 필름들의 일부로, 복원 전 / 복원 후를 비교할 수 있게 배치했다.

Ⅳ 대담 - 이종화 선생과 문학산

Ⅳ 대담 – 이종화 선생과 문학산

『문학산(文鶴山)』과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眞文化史)』를 집필한 이종화 선생의 본업은 의사(醫師)이다.

아드님에 따르면, 선생은 학창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해 상을 타신 적도 있다고 한다. 세브란스 의전(醫專)에 입학한 이후에도 글쓰기와 사진 촬영에 계속 흥미를 가져 틈만 나면 카메라를 메고 나가 집에는 거의 계시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선생은 세브란스 의전 졸업 후, 개업의(開業醫)로 활동하면서도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장, 인천예총 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와 함께 지역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인천의 자연과 고적, 유적지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귀중한 사진 자료를 남겼다.

이에 이종화 선생의 문화사적 자취와 성취를 돌아보기 위해 선생과 교분이 있었던 원로 문화평론가 김양수 선생님과 그 직후 인천예총에서 다년간 활동한 조우성 전(前)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다.

※ 일러두기

이 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10월 25일(수) 오후 3시경 진행한 김양수-조우성 두 분의 대담을 진행 순서에 맞춰 대화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최대한 구술 내용을 살리려고 하였으나 일부 문장은 기록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정하였고, 대화체에 맞게 문체 일부를 수정하였다. 김양수-조우성 두 분의 대담 사진은 당일 촬영하였으며, 대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좌)조우성 前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 (우)김양수 문화평론가

조우성 :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 미수이신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인천에 오시면, 친분이 있던 옛 분들과도 만나시는지요?

김양수 : 몸은 괜찮아요. 잘 지내고는 있지만, 옛날에 알던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좀 적적하죠. 하하……다 어디로 갔거나, 거의 세상을 떠났으니까….일이 있으면, 종종 인천에 들르지요.

조우성 : 선생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선생님은 아시는 걸 답변해 주세요.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에 사진이 도입되는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인천의 사진 문화 환경은 어떠했는가, 광복 후에 생긴 사진 동호회 '은영회' 이야기와 이종화 선생이 은영회 가입했을 때의 말씀. 특히 이종화 선생이 발간하신 『문학산(文鶴山)』과 이경성, 우문국, 장인식 등 그 무렵 인천의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대담을 하게 된 '문학산'이 향토사적 입장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양수 : 네 알겠습니다.

조우성 : 주제가 사진입니다.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인천은 사진과 알게 모르게 인연이 깊었던 도시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 해군 사령관 로저스가 군함 콜로라도 호를 끌고 인천에 왔었습니다. 그때, 전투 직전 함대를 찾아간 인천부 아전 김진성이 장죽과 맥주병, 보스턴 신문지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사진작가로 알고 있는 분이 1904년 서울에서 '천연당사진관'을 연 김규진이라는 분이죠.

김양수 : 맞아요. 김규진 선생이죠.

조우성 :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보다 먼저 지운영, 김용원, 황철 세 사람이 사진을 도입한 주역들이었습니다. 1883년 지운영, 김용원 등은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우거나 사진사를 데려와 '촬영국(요즘의 사진관)'을 열었고, 황철은 상해에서 사진기를 구입해 1884년 서울 종로 대안동에 촬영국을 냅니다. 제가 황철의 후손한테서 받은 복사본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인천을 찍은 사진도 있더라구요. 그게 인천의 풍경을 찍은 최초의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은 1883년도에 개항했다. 개항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들은 새로운 문물을 들여왔다. 사진기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조우성 선생에 의하면 사진의 시작은 프랑스였으며, 이를 일본이 받아들인 건 1841년이라고 한다.

인천 사람이 처음 사진과 접한 계기는 개항 이전인 1871년 신미양요였다. 이종화 선생은 이를 근거로 『인천사진문화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 촬영이 행해진 곳을 인천으로 보았다.

조우성 : 이와 함께 개항기인 19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스테레오뷰' 라는 게 있었어요. 사진의 시각차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입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기구를 '스테레오 뷰어러'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은둔의 왕국' 조선의 항구 인천에 와서 이국적 풍물이다 싶은 장면들을 찍어 널리 팔았습니다. 인천 사람들은 이미 1900년대 초에 입체사진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게 남아 있어 오늘 우리가 그 당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입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가시면 인천을 촬영한 1900년대 초의 입체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김양수 : 인천에 사진관이 생긴 건, 기록상 1904년이에요. 지금의 중구청....옛날에는 인천부 청사였는데 그 앞에 '이노우에'라고 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죠. '가와이' 사진관도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카메라를 가질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돈께나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카메라를 살 수 있었어요.

조우성 : 그렇게 사진을 경험했던 인천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진 동호회가 여러 개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동호회에 들어간 건 1940년대 초예요. 41년인지 42년인지 기록이 불분명한데, 동호회 이름이 빛 광(光) 자, 그림자 영(影) 자, '인천광영회(仁川光影會)'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1941년 무렵이면 선생님 춘추가.....

김양수 : 1940년, 41년이라...내가 1933년생이거든. 광영회라는 단체가 있었군요.

일제강점기 말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진동호회 '광영회(光影會)'가 있었다. 그중 정용복, 태영호, 정헌식, 신현호 등 소수의 한국인 회원들이 활동했다. 당시 경동사거리에 인천 최초로 DP점(사진관)이 생겼는데, 사진관의 주인이었던 김진근으로부터 광영회 회원들은 사진 촬영법이나 인화술 등을 배우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조우성 : 체육인 아저씨 정용복 선생이 조선인으로는 드문 '광영회' 회원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종종 오셨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능통하셨다고 해요.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인천시 관련 통역을 도맡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양수 : 정용복 선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용복 선생이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인천에...지금은 재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갑부'라고 했어요 갑부. 인천에 5대 갑부로 이홍선, 유군성, 정치국 등이 있었는데 정용복 선생은 정치국 씨의 아들이었어요. '협률사'를 만들었다는 그분이죠.
'협률사'가 나중에 '축항사'에서 활동사진 전문관 '애관'으로 바뀌어 오늘까지 명맥을 잇고 있죠.

정치국 씨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아들 정용복 선생을 일본에 유학 보냈어요. 일본 유학 중에 선생 길러내는 학교. (조우성 : 사범학교요?) 네, 거기 나왔어요. 그때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미군 만나면, 꼭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조우성 : 맞아요. 어학에 능통하셨다고 들었어요.

김양수 : 인천의 미군 사령관이 정용복 선생과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용복 선생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인천공설운동장이 생긴 것도 정용복 선생 덕분이에요. 서울처럼 인천에도 신설 공설운동장이 있었으면 좋

겠다 싶어 정용복 선생이 사령관한테 인천을 소개하면서 따로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사령관이 '좋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우성 : 아, 그러셨군요. 나중에 거기서 45회 전국체전도 했었죠. 그 정용복 선생이 나중에 '제물포사진동지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하세요.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 처음으로 인천에 조선인 중심의 사진동호회가 생겼는데, 그게 '제물포사진동지회'였지요.

일제강점기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천의 사진인들은 해방 후 정용복을 중심으로 제물포사진동지회(濟物浦寫眞同志會)를 조직했다. 안타깝게도 이 단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약 반년 만에 해산했다. 그 후 등장한 사진 동호인 단체가 바로 은영회(銀影會)였다.

조우성 : 제물포사진동지회가 없어지고 나서, 1949년에 '은영회'라는 사진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은 은(銀)'자에 '그림자 영(影)'자. 은영회가 49년에 생길 적에 회장이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을 하셨던 이경성 선생이셨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은영회 분들이 일본 유학파인 이경성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성 선생이 1946년에 『인천고적조사보고서』라는 것을 『연합신문』, 『인천공보』 그런 지면에 연재하셨거든요.

김양수 : 『연합신문』, 『인천공보』....그런 것들을 당시 인천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이경성 선생이 그때그때 왕성한 필치로 인천의 역사, 문화, 고적, 전설들을 풀어서 신문 같은 데에 자주 실었으니까....

조우성 : 그래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인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든, 은영회 최초의 회장이 이경성, 총무가 최성연 선생. 그다음에 선생님 아시죠? 김철세 씨.

김양수 : 영화도 만들었던 김철세 씨? 알죠.

조우성 : 그밖에 또 어느 분이 있냐면, 옛날 신일기업에 있던 노창래 선생. 인천소년단 지도자였던 김인수 선생, 이런 분들이 은영회 초기 멤버였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 나기 직전에 회장이 최성연 선생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영화 〈사랑의 교실〉 영화 만들 적에 촬영 보조를 했던 정의배 선생, 석남 이경성 선생 흉상을 만든 조각가 김길남 씨의 부친 김명철 선생, 이런 분들로 은영회가 똘똘 뭉쳐있었는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중지했다가 휴전 직후인 1953년에 이번에는 김인수 선생이 은영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종화가 은영회에 가입한 건 6.25 전쟁이 끝난 3년 후인 1956년이었다. 이 무렵 은영회는 인천은영구락부로 명칭을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은영회로 개칭했다. 그 무렵 은영회 초창기부터 활발히 활동하던 최성연은 문학에 전념한다며 은영회를 떠났다.

조우성 : 이종화 선생이 은영회에 가입했을 때는 은영회 회장이 『연합일보』 사장을 지냈던 허합 선생이었어요.

김양수 : 허합? 그 안경 끼고, 키 조그만 양반?

조우성 : 맞아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죠. 제가 LA 가서 만나 뵈었어요. 허합 선생이 회장하셨을 때는 이종화, 노창래, 김봉조, 이자영, 김철세 선생 등이 회원으로 있었죠. 최성연 선생은...

김양수 : 그때부터 최 선생은 시조 썼을 거예요, 아마. 문학한다고. 나중에 『동아일보』에 시조가 당선되고 『은어』인가 하는 시조집도 내고 그랬지.

조우성 : 그렇죠. 어쨌든 이종화 선생님이 1956년에 은영회 가입하고 보니까 회원들이 다 인천의 유지들인데다가 인천의 고적, 전설, 설화, 명승....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바람직하게 발전해 간 지역 문화사적 풍토였겠는데, 그에 당연히 이종화 선생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영회 회원들 중 처음으로 사진 전시회를 한 사람은 김철세였다. 1953년도 5월 1일부터 10일간 시립박물관에서 첫 개인 사진전을 했다고 한다. 이종화 선생은 1956년 은영회 가입 첫 해에 처음으로 회원 동인전에 참여했다.

조우성 : 이종화 선생은 1956년 은영회 전시회 때에 처음 참여했던 겁니다. 선생님, 제 동기로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했던 장영복 씨와 그분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인천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항도백화점' 아시죠?

김양수 : 알지. 항도백화점. 싸리재에 있었던가 그거....그 백화점 건너편에 이경성 선생 아버지가 하던 국수집도 있었고. 그 근처에 사진관도 있었을 텐데.

조우성 : 그쪽에 있던 사진관은 잘 모르겠는데, 은영회가 동인전(同人展)을 바로 그 항도백화점에서 했었어요. 거기 말고도 내동에 가면 금융조합 자리 있잖아요. 지금의 중소기업은행 자리요. 거기 2층에서도 전시회를 했고요.

당시 사진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사진기와 필름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인물 사진을 찍었다. 돌 사진, 결혼사진, 환갑 사진, 그게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였다. 필름이 비쌌던 시절이었지만, 은영회 회원들은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풍물 사진이나 살롱 사진들을 많이 촬영했다.

조우성 : 은영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진 인구의 확대에도 많은 공헌을 했어요. 특히 195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규모의 사진 대회를 열었어요. 제1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가 그것입니다.

김양수 : 그런 거 있었어요. 작약도에 가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주로 팔미도에 배 타고 가서 했고. 이름난 배우들이 모델로 나오기도 했지.....

대담이 이어지면서 김양수 선생님은 자신이 기억하는 이종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양수 : 나는 이 양반 이종화 선생. 사진가인지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알았죠. 언제던가.....젊은 나이.....내가 20대 초였을 때,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했었어요. 그 양반 병원에서 신체검사 많이 했었어. 검사하러 가보면 거기에 몸집이 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군대에 끌고 가려고 신체검사를 반년 만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자주 했었거든. 신체검사 받으러 가면 꼭 그분이 앉아있는 거야. 저분이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종화 선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기억에 참 중요하게 남아있는 게 이 『문학산(文鶴山)』 책이에요.

병원 진료실 책상에 앉아있는 이종화(이희관 제공)

『문학산(文鶴山)』 책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방 후에 발간된 인천의 역사, 문화 관련 도서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1949년 이경성 선생이 집필한 『인천고적조사보고서』를 시작으로 인천의 역사, 문화, 고적과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발간되었다.

조우성 :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종화 선생이 매주 『인천공보』에 연재했던 이경성 선생의 문학산 관련 고적 조사 보고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진가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종화 선생이 『문학산(文鶴山)』 책을 내게 된 건 이경성 선생의 영향이 컸을 거다 싶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가져왔어요. 1959년도 책 『향토 인천의 안내』인데 이거는 당시 시립박물관장을 했던 검여 유희강 선생이 만든 거예요.

김양수 : 내가 이경성 관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거 검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경성 선생이 해 놓은 거예요. 서랍 속에 있는 걸 꺼내보고는 이 양반이 대신 모두 정리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우성 : 그래서 '편저(編著)'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 책에 자극을 받아서 나온 게 최성연 선생의 『개항과 양관역정』이라는 책인 듯 합니다. 이종화 선생은 1959년도에 나온 이 두 책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종화 선생이 이경성, 유희강, 최성연....지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 분들과 교유를 하셨으니 '사진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 탄생된 게 『문학산(文鶴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변가로 사진 촬영을 나온 이종화(이희관 제공)

1960년대에는 슬라이드 가격이 비쌌다. 게다가 현상도 어려웠다. 미군 부대에 부탁하면 오키나와에 있는 컬러 현상소에서 현상해 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미국에서 필름이 나오던 시절이라 필름도 고가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카메라, 필름, 환등기 등 고가의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이종화 선생이 슬라이드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조우성 선생은 추측했다.

조우성 : 이종화 선생과 관련해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만한 박스에 사진들을 꽉 채워놨다고. 언젠가 선생의 사진을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중구청 호적과까지 가 수소문을 했어요. 끝내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아드님이 그 슬라이드 일체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선생은 사진작가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국내외의 각종 사진 대회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일본, 덴마크 등 국제 사진전에도 출품해 상을 받기도 했다.

조우성 : 제 기억으로는 덴마크 국제 사진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원죄근처〉라는 게 있었어요. 높은 벽에 매달려 있는 올빼미가 그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살롱 사진이었어요.

또 하나는 오타와 국제전에 입상한 작품이에요. 찬거리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웬 소녀가 'he loves me!'라고 적힌 스웨터를 입고 가는 장면을 잡은 것인데, 6.25 전쟁 직후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품 제목이 '그녀는 영어를 모른다'였어요. 위트가 번쩍이는 타이틀이었다고 봅니다. 이종화 선생은 나중에 전국사진대회에 가서 심사위원도 하실 정도로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죠. 초대 인천예총 회장도 하셨죠?

김양수 : 그랬어요. 1963년도에 예총이 만들어졌을 적에 이종화 선생이 초대 회장을 하셨죠.

조우성 : 이종화 선생이 회장하시기 전에《세종문화큰잔치》라는 예총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사진 촬영 대회도 했었죠? 학생 사진 촬영 대회도 그때 있었고요. 제가 그 시절 포스터 몇 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수 : 거기 늘 갔었죠. 사진 말고도 연극, 문학, 성악...그《세종문화큰잔치》를 어디 가서 했냐면 세종대왕릉... 영릉인가? 거기서 했죠.

조우성 : 거기서 백일장도 했어요. 학생 백일장. 제가 기억하죠.《세종문화큰잔치》의 개막식은 영릉에서 했는데, 부대 행사는 다 인천해서 했어요. 수원에서 안 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인천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천서 문학 행사할 때마다 선생님이 대선배, 원로로서 참석하셨던 일들이 기억나는군요.

1966년 제15회 덴마크 국제전에서 입상한 사진 〈원죄근처(原罪近處)〉

화제는 이종화 선생이 발간한 책 『문학산(文鶴山)』으로 넘어 갔다.

조우성 : 제가 이 책 원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에다 꼭꼭 숨겨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젊은 분들이 와서 복사본 좀 만들겠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원본을 빌려준 적이 있었죠.

김양수 : 원본은 그것보다 커요.

조우성 : 맞습니다. 『문학산(文鶴山)』은 1965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던 66년 3월에 인천시 공보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었어요. 10년간 촬영한 사진 중에서 역사적인 것만 추려 편집한 것이었죠. 당시 윤갑로 시장이 축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도 가셨었어요?

김양수 : 아마 갔었을 거예요. 희미하긴 하지만, 용케 저런 책이 나왔구나 생각했었죠.

조우성 :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종화 선생이 문학산을 10년을 다녔답니다. 선생님, 인중 다니실 적에 문학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김양수 : 네. 사실 문학산은 6.25 난 직후에 군대가....미군하고 한국군 일부가 문학산에 기지를 거기다 뒀습니다. 그런 바람에 일반인들이 문학산에는 못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혹시나 군대 있는 걸 정탐하는 자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문학산을 이 양반이 그렇게 용케 올라가 가지고.

조우성 : 영어가 통하셨으니까요.

김양수 : 개인이 거길 올라갔다간 금방 간첩으로 오인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을 헤치고 사진을 찍었는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걸 보고 의학박사 신태범 박사가 놀래 가지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소풍 간 곳이 문학산이지만, 지금은 거길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이걸 만들어서 냈냐?' 하면서 그냥 펄펄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래도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 역시 병원 의사가 앞서가는 일을 많이 한다고 칭찬하시고 그랬어요.

조우성 : 선생님, 소싯적 인중 다니실 적에 문학산에 토끼 잡으러 가보셨어요?

김양수 : 인중 시절에...그때는...소풍이 아니고, 원적이라고 했어요. 문학산에 갔었는데,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간다.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보고만 내려와라....그래서 그 맨 밑에 가서 놀다가 그냥 왔어요. 길영희 교장 선생 있을 적에 제 후배들은 문학산에 토끼 잡으러 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죠.

조우성 : 『문학산(文鶴山)』 책자에 '문학산성 동문(東門)' 사진이 실려 있어요. 이 걸 검여 선생이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한 현대의 금석문인데 행방불명인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박물관 관장으로 있을 때 해방 후 최초로 본격적인 문학산 지표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문학산에 며칠을 갔었어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 모시고 갔을 적에 본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없어진 게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갔었을 때와는 또 많이 변했고...그래서 산성 보존 현실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옛날의 이 사진을 보면, 성벽의 형태가 고풍스레 완연한데, 이런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학산성 동문(東門)(출처 : 『문학산(文鶴山)』, 1965.)

김양수 : 거기에 성벽 말고도 백제 우물터가 있었는데.....

조우성 : 맞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돌아가신 박광성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다니실 적에 이형석 가천문화재단 부장과 제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녔었죠. 백제 우물을 발굴해 본 것도 기억이 나요. 물만 솟아 나왔지 관련 유물이 안 나와 실망했었죠. 지금도 그 자리에 백제 우물터를 알리는 비석은 남아 있습니다.

김양수 : 그 우물터.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우물터가 왜 유명하냐 하면 거기서 누가 물을 길어 올리다가 끈이 끊어져 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렸는데,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깊은 우물이었는데....어느 정도냐 하면 누가 만들어 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물이 월미도 바닷가로 이어져있다고 했죠. 하하하.

조우성 : 재미난 설화죠. 어쨌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치까지 나오는 성벽이....멸실되었다는 건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어쨌든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논리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종화 선생이 남긴 이 『문학산(文鶴山)』이라는 책자로 과거에 멸실된 유적들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미추홀구 학익동, 관교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진들을 보고 '아, 옛날에 이랬던 동네구나....'하고 감회에 젖을 거예요.

『문학산(文鶴山)』에 대해 회고하는 조우성, 김양수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문학산은 군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었다. 그러나 2015년 문학산을 개방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산 정상부에 서예가 전정우 선생이 쓴 '문학산'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근처에 문학산 역사관이 있다. 이곳에서 문학산의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문학산성의 디오라마 등도 볼 수 있다.

조우성 : 이종화 선생은 10여 년 동안 촬영하신 문학산 사진 200여 점을 환등기로 보여줬어요. 그 슬라이드 영사회를 1962년 9월에 처음 실시했는데 장소가 시립박물관이었어요. 거기에 동참한 분이 누구냐. 우선 서예가 검여 유희강 선생, 서예가 우초 장인식 선생, 그다음에 동양화가 우문국 선생. 조평휘라는 화가도 계셨어요.

그 다음 제가 종종 뵈었던 미술 평론을 했던 김인환 선생. 그날 한상억 선생이 해설을 맡으셨고, 제가 어려서부터 알던 낭승만 시인과 조한길 시인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분은 『연합신문』 문화부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고교 시절에 시를 보내면 늘 실어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날 선생님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김양수 : 그때 시립박물관이 자유공원에 있지 않았어요? 그, 왜, 지금의 제물포구락부 있는 데 말이에요.

조우성 : 맞습니다. 그 좁은 데에 인천의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영사회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발전시켜서 2년 후에 책으로 낸 게 바로 이 『문학산(文鶴山)』입니다. 총결산을 한 셈이지요.

김양수 : 신태범 박사가 『인천 한 세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신 이유도 『문학산(文鶴山)』 때문에 쓴 거예요. 이 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예요. 이 책이 나왔다고 참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구요.

조우성 : 그 '이종화 천연색 슬라이드전(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유명을 달리하셨죠. 조평휘 선생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불비(不備)해서 『문학산(文鶴山)』 책자가 몇 페이지 안 되는 소품이었지만, 이제 슬라이드 작품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구에 본격적인 책을 냈으면 합니다.

두 분의 대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대담 중간중간에 김양수 선생님은 자신이 추억하는 인천에 대한 기억들, 인천 관련 사람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다. 시간 관계상 저녁 무렵 대담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양수 선생님과 조우성 전(前) 관장님 두 분의 대담을 통해 이종화 선생님이 촬영한 사진들의 가치와 향토 도서 『문학산(文鶴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 선생님을 모셔서 과거 인천의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말씀을 더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